

# 野, 尹 지지율 30%에 “인사난맥·檢公화국…아마추어” 맹공

### 이상호 “우려했던 아마추어리즘 계속 드러나” 박홍근 “무검증 무청문 인사…국회 정상화 견어차” 김성한 “尹 정부, 모랫속에 머리 박은 타조와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두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의 전문성 부족과 인사난맥, 전 정부 겨냥 수사 등 검찰공화국과 등을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선 때도 이 분(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안해보고 검찰총장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우려했다. 그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원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다. 막상 투쟁을 열어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민생에 3고, 아주 여러

움이 생겼는데도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고 또 긴장감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인사에 있어선 여러가지 난맥상을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욱하더니 더하네”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 강하게 느껴진다”며 “민간인을 1호기에 태운 이런 것은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자꾸 변호하고 강변하려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 등 보복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난맥에 대해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세청장, 교육부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무청문 무검증 임명 강행만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장관 인사 9명 중 4명이 취임 두 달된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다”며 “이는 협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독주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 발판을 대통령이 걷어찬 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회 패싱, 민생 패싱 없도록 인사청문 특위, 민생경제 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며 “여당이 인사대참사,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 최소한 협력적 태도라도 보일 것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명까지 두 달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에 주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인 검찰총장에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누가 총장이 되든 AI(인공지능)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 추천위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야 할 바란다”고 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테드라인에 접근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송옥렬 후보자까지 벌써 4명째 사퇴하며 부실 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채 내러 줄 모른다. 여기에 검경,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정치보복과 권력사유화, 외가 6촌 채용과 기타 수행원 논란까지 집권 초기라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난맥상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랫속에 머리

박은 타조와 같다. 국민 여론, 엄중한 질타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까지 일부러 찾아봐야 하는 자리”라며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강득구 의원은 인기 두 달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지지율 하락 신경 안 쓴다는 대통령의 말은 성난 국민의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라며 “지지율 하락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공정을 말하고 선거 기간 내내 주요 키워드가 공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어진 인사, 음주운전 갑질 장관을 두고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다”라고 했다.

정승호기자

## 박지현 “국민 44%, 제 출마 지지…이재명·이상호 결단 촉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전당대회 출마 무산과 관련, “민주당의 혁신 경쟁이 없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신의 출마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의원께서 진정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라

### “혁신 경쟁 없는 ‘어대명’ 선거는 민주당 몰락의 신호탄”

신다면, 말씀대로 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님과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폭력적 팬덤을 뿌리치고 제 출마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혁신 경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이 의원과 우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 5월24일 국민 여러분 앞에서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라는 민주당 5대 혁신안을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은 사라지고 말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이 5대 혁신안으로 민주당을 뿌리째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 저는 이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서 후보도 민주당을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으로 혁신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민주당은 더 깊이 팬덤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제 출마를 자리 욕심으로 매도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니다. 제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했고, 지금은 그 어떤 후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주당 혁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예의를 인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판단,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무위에서도 비대위 의견을 만장일치로 존중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 윤석열 대통령, 10m 떨어진 도어스테핑

### 잠정중단했던 약속회견, 하루 만에 원거리로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잠정중단했던 출근길 약속회견을 하루 만에 12일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취재진은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큰 소리로 묻고 답하는 등 원거리 약속회견으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코로나로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취재진이 ‘이 정도 거리에서 도어스테

핑을 하는 건 어떠냐고 묻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갑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재유행 방역 계획’에 대해 묻자 “어제 질병청장, 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를 했다”며 “내일 총리 주제로 중대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처 업무보고 관련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내일도 할거냐고 묻자 “이거야 하면 안 되냐”라며 “여러분 관할이면 며칠 있다가 요 (조금 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을 치자”고 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